

양대 문화기구 위기돌파 카드는 혁신·인재양성

‘격랑 2014’ 이슈 진단

⑤ 광주 문화기관들 ‘쇄신 시험대’

‘위기’ 그리고 ‘개혁’. 광주의 양대 문화기관인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렸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흥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논란으로 ‘신정아 사건’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고, 광주문화재단은 9개월간 계속된 대표이사 공석과 임기 중 자리를 옮긴 사무처장의 빈자리로 사실상 표류하고 있었다.

이들 계기로 두 기관의 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역 문화계는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두 기관 모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얼마나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내년 판가를 날 전망이다.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 선임 최대 과제=‘세월오월’ 논란으로 ‘세계 5대 비엔날레’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축제’라는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과 갈등, 정체성 혼란, 조직 내부 문제 등은 광주비엔날레를 ‘개혁’이라는 수순대 위에 놓았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것은 지역 사회 참여 외면과 전문가 양성 미흡이었다.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정작 지역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기간 국내에서 5~6개의 대형 비엔날레가 동시에 개최되는 등 국내외 비엔날레의 홍수 속에 광주비엔날레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9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6개월 임기의 신임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를 꾸려 개혁작업을 진행 중이다. 혁신위는 내년 1~2월 사이 ‘광주비엔날레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광주시 위탁사업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손을 떼는 등 몸집을 줄이고 조직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사진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이 선출되면 22일 임기가 끝나는 이사 15명에 대한 교체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사진의 규모도 7~8명 줄어든 15명 안팎으로 꾸러질 전망이다.

광주비엔날레, 신임 이사장 내일 선출...후임 대표 관심

광주문화재단, 조직 개혁·기금 마련으로 정상화 가속

망이다. 특히 정 대표이사가 “신임 이사장 후보는 정부는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무계갑 있는 인물”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역 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비상근 이사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다. 정 대표이사가 취임 초 “6개월 동안 조직을 정상화시키고 물러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광주비엔날레를 국제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년 만에 정상화 찾아가는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노성대 전 대

표이사 사퇴 이후 지난 10월까지 ‘선장’ 없는 항해를 해왔다. 이에 지역 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금 확보 등 재단의 중요 현안도 담보 상태에 빠졌다. 또 백화점 식 사업 전개와 조직 내 불협화음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문화계에서는 재단이 광주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현재 86억 원으로 전국 문화재단 중 최하위인 재단 적립금 확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0월 서영진 대표이사 선임 이후 정상화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서 대

표이사는 취임 직후 재단이 해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조직 개혁 작업을 서둘렀다. 정책 연구 중심으로 핵심기능 전환, 재단 정체성 확립 및 기금 확보, 직원 화합 및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을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다. 최근 인사에서는 인력 재배치로 인적 쇄신을 꾀했고, 문화재단 본연의 기능을 위한 정책 연구실을 부활시켰다.

특히 “문화재단 적립기금 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매년 시 출연금을 통해 기금 200억 원을 확충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300억 원을 추가 마련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문화재단 기금 5억원을 포함했지만 애초 재단의 목표액에는 크게 못 미쳤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얼어붙은 최영함 함포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한 최영함이 마지막 기항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입항 중 현지 기상악화로 파도를 맞은 함수 부분이 얼어 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단단은 지난 9월18일 진해 군항을 출항, 오는 23일 진해항으로 입항예정이다. <해군 제공>

전남 구제역 경보 ‘경계’로 격상

AI와 공동 대책 추진...백신 확보·방역 확대

전남도가 구제역 위기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확대해 구제역 방역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증평,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음성에서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8일 방역 강화를 위해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를 높였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발효된다. 전남도는 지난 1934년 이후 단 1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구제역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남도는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경남, 충북, 충남지역의 돼지의 경우 전남지역 도축장에서 도축을 제한하고, 모든 축산농가의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농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백신 공급분을 조기에 구입해 우선 공급하고 도축장에서의 백신 항체율 검사를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농가별 백신접종 실명제 담당공무원 4000명을 활용해 도내 돼지 사육 전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구매품 및 접종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올바른 예방접종 요령을 홍보한다.

어미돼지에 백신접종을 한 후 새끼돼지에 1차 접종할 경우에만 항체 형성이 잘되므로 어미돼지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하고, 미접종 어미돼지가 있을 경우 새끼돼지에는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 백신 구매율과 백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돼지 전 농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O형+A형+Asia1형 세 가지 혼합 백신의 한가지 형인 O형으로 예방접종 하면 100% 막을 수 있다”며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가족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많이 소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중 동북지역 상호 협력 강화

이 지사, 박람회 참여·학문 교류 등 논의

전남도와 중국 지린성이 서로 주최하는 박람회에 참여를 제안하는 등 상호 교류를 넓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9일부터 3일간 중국 지린성을 방문해 성장, 연변대 총장, 연변조선족자치주장을 차례로 만나면서 전남도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19일 장차오량(蔣超良) 지린성 성장과의 면담에서 양 지역은 농업업과 관광분야 등에서의 유사점을 활용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장차오량 성장은 내년 9월 지린성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투자유치 국제박람회에 전남도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2015 국제농업박람회와 대나무박람회,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세계 친환경 디자인박람회 등을 소개하고 지린성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20일 오전 연변대 박영호 총장을 만난 이 지사는 전남도립대 등 도내 대학과 연변대와의 학술·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오후에는 이경호 연변조선족자치주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지린성 방문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교류의 물꼬를 튼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방문기간 중 교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해 갈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치매국책연구단 광주센터 오늘 개소...한국인 맞춤 진단 개발

조선대 의대 생명공학관에 위치

노인들의 치매를 예측해 적절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연구시설이 조선대학교 의대에 들어선다.

미래장조과학부 지정 ‘치매국책연구단 광주센터’(센터장 이건호, 조선대 의생명과학과 교

수) 개소식이 22일 오전 10시 30분 조선대 의과대학 2호관 한마음홀에서 열린다.

윤정현 광주시장과 장병완 국회의원, 서재홍 조선대 총장,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은 개소식에 이어 광주센터가 들어선 생명공학관에서 현판식 및 기념식수를 하고 센터 시설을 견학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치매국책연구단 광주센터는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한국인에 최적화된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간다.

조선대 의대 생명공학관 3·4층에 150평 규모로 조성된 치매국책연구단 광주센터에서는

최첨단 인체 유래물 저장시설과 빅데이터 분석용 슈퍼컴퓨터 등을 갖추고 치매 진단과 조기진단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2019년까지 국비 145억원을 포함해 총 16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광주센터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치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 최적화된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기술을 개발, 대국민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희경기자 chae@

신안의꿈! 새로운 시작!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파도소리, 바람소리, 저녁 노을, 아침 안개속으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힐링의 섬!

<p>신안천일염</p> <p>미네랄이 3배 많고 나트륨이 10% 적은 국민의 소금 신안천일염</p> <p>문의 천일염산업과 (061)240-8348</p>	<p>신안땅콩</p> <p>비타민B와 E,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필수지방산인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된 신안땅콩</p> <p>문의 농업기술센터 (061)240-4141</p>	<p>신안김</p> <p>청정갯벌에서 자란 김은 필수아미노산을 흡수하는데 매우 좋은 식품으로 칼슘,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김</p> <p>문의 해양수산과 (061)240-8971</p>
<p>신안새우젓</p> <p>웅기에 신안천일염으로 숙성하여 더욱 맛있게 신안새우젓</p> <p>문의 해양수산과 (061)240-8908</p>	<p>신안삼초</p> <p>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당도가 높으면서 비타민과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한 신안삼초</p> <p>문의 친환경농업과 (061)240-8380</p>	<p>신안새우젓</p> <p>웅기에 신안천일염으로 숙성하여 더욱 맛있게 신안새우젓</p> <p>문의 해양수산과 (061)240-8908</p>